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은 국내 최대의 한약 전문상가로 이를 높다.

한약전문상가의 데카

기획특집 경동시장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70%가 유통되는 이곳은 산지에서 올라오는 약재운반차량과 구매자들의 발길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신춘제 행사 장면)

일반한의원보다 20~30% 가격저렴

전통 한약상가로 제2의 도약 준비

서는 웬만한 충소연동시 장과 맞는 연간 4천억 원으로 예~5천억 원이 넘는 것과 파악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수요가 가 장 큰 애재로는 학부·천궁·백작약·숙지황·황기·백출·황토자·감초·진피 등을 10대 품목외에는 종이드럼통·자루 등에 이름표를 기다리고 있다. 길에 봇자리를 끼고 숙지황·간조등을 썰어 말리고 약을 말여 배탈약이 오가는 전문들의 발길이 부산하다. 산가의 규모 말미이나 10여년 사이에 전통약학 산가는 벼화를 보이고 있다. 90년 전하고 거리전시회를 유통전시회를 조성하고 가격 표시제

보이는데 이 일대가 결동사정의 학교성지이다. 항의원, 악국, 탕제원 등 한의학과 관계없는 힘들 절도다. 끌간데 없이 늘 어선 길 양의 간파를 만 보고도 누구나 한의에 이곳이 한의학의 중심 실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다. 간파를 뽐이 아니다. 이 근처에 오면 각종 한약재와 탕제원 들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이곳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대지	2만5천평에	1
의원	2백50여개,	「한약 역사」
국내최대의 도매상	점포가 80여곳에	이르며, 탕제원 80곳 한약방 12여개들이 뒤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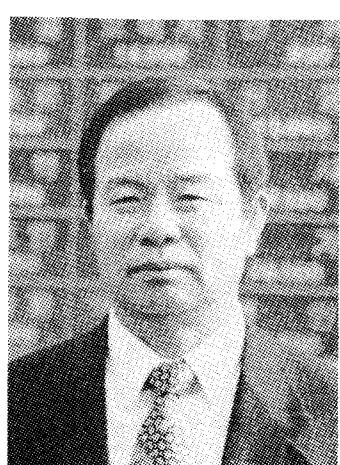
본거지를 협성하고 있다. 이곳 제기동 한아재 부근에 철학리역, 선작동, 동역, 마을로서 버스터미널이 있는 동부교통의 유통지도 약자의 산지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상가협동조합에도 재취급상이 20여개에 불과했던 이곳은 70년대 종로 4·5가 상인들이 이주해 오면서부터 급격히 성장, 현재 1천여 가구 규모의 윤전한 국내최대 규모의 명실상부한 대규모의 약의 거리로 자리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70%가 유통되는 이곳은 산지에서 올라오는 약재 운반차량과 구매자들의 발길로

양 도



이 밀집 경쟁률 뿐만 아니라 것도 가격이 저렴한 이 유가 되고 있다.

박호현
(한약가 협의회장)



우리시장을 말한다

첫 행사로 지난해 10월 27일 경북대학 암자 내에서 「무료진전 및 우수국산 환경재정 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믿고 찾을수 있는 거리로



찾아올 수 있는 거리
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어로 전통한약상가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상태이 되면 이곳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한약전문

의 실시등
자율조직으로서
여행을 해내고 있다.
상거래촉면에서도 확
연히 달라지고 있다.
상가복우기 조성과 공
점화거래질서를 확립하
기 위해 시장복구에 상
가업내도 및 가격세표
를 설치한 것이 그 대표
적인 예이다.

지난해 5월에는 학의
사회, 약사회, 한의도매
협회, 의약품수출입협
회, 삼가번역회, 한글생
약협회 등 제기동 학교
준시세를 정해 놓은 것으
로 달구 활귀 농용 인삼
주요 학교재 30여종
의 가격이 제시되고 있
다.

가 모여 회를 일대 관리단체들이 경찰항법학 상가 협의회에 발족하는 학관경찰이 동한양상가의 전통항법학 제2당.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주거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상가구를

설명하기 위해 활발히 교
설을 진행중이다. 특히 결혼한 여성가 발
전을 위한 전통학양상가 발
지정 건의안이 서를 시에 있는데 이건
설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국제적인
의안이 풀과되며 이곳은 물론
양전문상가의 메카로 자한
리하게 될 것이다.

양질한 약재 공급에 최선

에 최선
비스와 양질의 환경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움을
받고
소비자
에게
의자
를
판매
하는
업체
는
제품
을
제작
하는
제조
업체
와
제품
을
판매
하는
판매
업체
로
구분
된다.